

## 주민등록번호를 창안해 준 보람

김대영(金大泳)

〈1971~77 수석연구원·전 건설부 차관〉

나는 스탠포드대학교에서 통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공부를 하면서도 내 자신이 미국에서 적응하며 살기는 어려운 기질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한국에서 공군 대위로 제대하고 유학을 갔던 나는 미국적인 사고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가 스탠포드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을 때 후에 경제기획원 장관이 된 남덕우 장관이 1년 동안 초빙 교수로 와 계셨다. 그때 처음 인사를 드리고 자주 찾아뵙게 되면서 나는 그분의 학구적 정열과 부지런함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

대부분의 초빙교수들은 적당히 계약기간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이분은 연세도 많고 장관도 지낸 분이면서도 틈만 나면 자전거를 타고 교내를 돌아다니며, 수학이나 통계학 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의 강의를 열심히 청강할 정도로 부지런히 공부하고 연구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1970년대 장관들 중 남덕우 장관만큼 통계학이나 계량분석 분야를 많이 아는 분은 없었다.

남덕우 장관이 스탠포드 생활을 끝내고 귀국하실 때 나는 통계학 박사 학위를 끝내면 바로 한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때의 내 말을 기억해 두었다가 KDI가 발족될 즈음 김만제 원장에게 나를 소개했는지는 모르지만 1971년 5월, 김만제 원장이 미국에 와서 연구원을 모집할 때 나를 보자는 연락을 해 왔다. 김 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한국의 통계분야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고, 계량경제분야의 연구에도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니 마침 통계학 박사를 찾고 있었는데 잘되었다고 하면서 즉석에서 채용을 결정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1971년 8월 귀국하여 KDI 수석연구원으로 일을 하면서 초창기 전산실 일까지 맡아 바쁜 생활을 시작했다.

우리 KDI 초기 멤버 11명은 독일 박사 한 분을 빼고는 모두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고 적게는 7.8년부터 많게는 10년 이상을 미국에서 살다 귀국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호홉이 잘 맞았고, 연구업무는 벽찬 편이었지만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면서 친밀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다. 퇴근 후에는 서로 어울려 술집에도 많이 드나들었고, 바둑을 두는 사람은 바둑을, 포커를 좋아하는 사람은 포커를, 동호인들끼리 어울려 즐기기도 했다. 나는 술을 좋아하고 바둑도 좋아해서 송병락 박사과 자주 바둑을 두었다. 가끔 방내기도 하였는데, 우리는 서로 상대방이 바둑에 저서 용돈을 대 준다고 농담을 해 동료들을 웃겼다.

KDI 시절의 추억으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일이 있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출생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주어진다. 그러나 이 주민등록번호는 아무렇게나 순서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은 1975년 주민등록제도를 처음 실시할 때 정부의 부탁으로 내가 만들어 준 것이다. 내놓고 한 연구 프로젝트도 아니고 내가 가진 통계학적 지식으로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Social

Security No), 즉 사회보장번호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간단하게 만들어 준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는 앞쪽 6자리 숫자 집단과 뒤쪽 7자리 숫자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의 6자리 숫자가 당사자의 생년월일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리고 뒤의 7자리 숫자 중 첫 번째 숫자가 남자(1)나 여자(2)를 표시한다는 것 역시 누구나 다 안다. 그러나 그 뒤부터는 왜 자기가 그런 숫자를 갖게 되었는지 모르고 있다. 이 뒷 부분 7자리 숫자 집단에는 발행자만 알고 검증할 수 있는 비밀 시스템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2번부터 5번까지의 4개 숫자는 시·도·군·구 등을 가리키는 지역번호로서 발행지역이 4자리 숫자로 표시되어 있다. 6번째 숫자는 해당 지역에서 그 번호를 부여하는 순서기호, 그리고 마지막 숫자는 체크 디지트(Check Digit)라고 해서 앞의 6개 숫자 중 어느 하나만 바꾸어도 7개 숫자의 조합이 맞지 않아 위조를 가려낼 수 있는 검증용 숫자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마지막 숫자로 각자의 번호를 체크하여 그 진위를 가려낼 수 있도록 짜여진 통계적 조합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 공식에 의해서 각 지역별로 총 1억 명까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수가 있다. 따라서 남북이 통일된 뒤에도 우리나라 인구가 1억을 넘을 가능성은 없으므로 영구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 나갈 수가 있다.

이 주민등록번호시스템 개발은 1975년 주민등록법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기획원 김재익 국장이 상의를 해 와서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참작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고안해 준 것이다. 나로서는 간단한 업무 협조였지만 그 후 우리 국민 모두가 제각기 자기 번호를 갖게 되었고, 또 자손 대대로 부여받을 고유번호 시스템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그때 내가 KDI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도 오지 않았을 것이다.